



희망의 새 천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 모두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맞고 있는 새 천년은 시간의 변화라는 의미를 넘어, 경제성장의 원천과 개인의 생존방식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적용되는 새 시대가 될 것입니다.

경쟁의 장이 국내에서 세계로, 사이버공간으로 확대되고, 세계일류만이 생존할 수 있으며, 승리를 위해서는 자체경쟁력을 확보하거나 어제의 적과도 전략적 제휴를 감행해야 합니다.

국가나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물적 자본의 양보다 인적자본의 질이 중시될 것입니다.

변화의 속도 또한 빨라질 것이므로 끊임없이 변신하지 않고서는 도태될 수 밖에 없으며, 언제나 변신이 가능한 유연한 사고와 가벼운 몸놀림을 요구할 것입니다.

산업경쟁력 재무장의 해

— 희망과 도전의 새 천년을 열면서 —



산업자원부장관
정 덕 구

기업인과 근로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새로운 천년을 기회의 천년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고 생각합니다. '98년에 이어 '99년에도 대규모의 무역흑자와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해 경제회복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습니다.

산업구조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치유하기 위한 5대 정책과제를 도출하여 구조조정이후 우리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기술혁신체제를 효율화하고 중소·벤처기업과 부품·소재산업 육성시책을 강화함으로써 21세기 선진 산업구조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전국의 기업인과 근로자 여러분!

2000년 새해에는 구조조정의 효과와 선진국 경제의 성장으로 우리 산업의 활력이 회복되리라 기대되지만, 산업활동의 여건은 기회와 함께 도전을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제경쟁이 기술패권주의의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며, 경제활동의 프런티어가 사이버공간으로 확대되면서 전자상거래 능력이 경쟁력의 요체로 부각될 것입니다. 자동차·화학 등 자본집약 제조업과 정보통신 등 지식기반 신산업을 중심으로 국제분업질서의 재편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각국간에 에너지 확보경쟁이 심화되고 국제적인 환경규제 압력이 증대될 것입니다. 이러한 여건속에

서 새로운 세기를 여는 첫 날 아침에 저는 2000년을 "산업경쟁력 재부장의 해"로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2000년은 기술과 지식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경쟁력을 창출함으로써 21세기 선진 산업국가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지식·기술혁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적인 기술혁신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기술입국의 꿈을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정부와 민간의 기술개발투자를 확대함과 동시에 기술의 개발, 평가, 거래, 사업화의 효과적인 순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기술거래소 설립 등 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인프라를 완비하여 기술개발의 경제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것입니다. 기술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함으로써 기술인이 사회에서 촉망받으며 경제적으로도 충분히 보상받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입니다. 지식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국가표준제도를 선진화하고, 국립 디자인아카데미 신설 등으로 세계수준의 디자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산·학·연을 네트워크화하여 산업경쟁력 강화의 새로운 추진체가 되도록 유도하고, 산업별 협회·단체가 산업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전문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21세기 산업구조의 중심 기반이자 기업경쟁력의 요체로 부각되고 있는 전자상거래를 본격적으로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0년 전자상거래 5대 강국 진입」을 국가전략목표로 설정하여 사이버물 중심의 전자상거래를 기업간 거래와 사이버무역으로 확산시키고, 시장의 신뢰성과 인프라도 확충할 것입니다.

전자상거래를 기반으로 하는 신산업질서를 우리 경제·산업 전반의 선진화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기업이 창의력을 바탕으로 유연한 경영전략을 전개하는 등 기업경영을 선진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입니다.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지난 해 하드웨어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이 차원 높게 승화될 수 있도록 기술, 재무, 지배구조 등 기업경영의 소프트웨어 개혁을 통하여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산업정책 노력이 결실을 맺을 경우 무역수지 흑자구조의 정착이 기대됩니다.

특히 산업의 허리인 부품·소재산업을 산업의 중심축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산업의 저변인 중소기업이 꽃을 피우는 한 해가 되도록 주력하는 한편, 에너지가격의 현실화로 에너지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에너지절약 시설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적정흑자수준 유지를 위한 중장기적 정책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150억불 흑자달성에 총력을 기울여 앞으로 일정규모의 무역흑자가 정착되는 무역수지 안정벨트를 형성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투자를 산업구조 개편의 핵심수단으로 활용하여야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160억불 투자유치, 국내총생산중 외국인투자 비중 10%를 목표로 내실있는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2010년 외국인투자 비중을 20%로 제고할 수 있도록 「외국기업 경영·생활환경 선진화 대책」을 수립하여 착실히 추진할 것입니다.

전국의 기업인과 근로자 여러분!

저는 21세기의 첫 5년이 우리나라가 선진산업국가로 도약할 것인가, 중진국 수준에서 한 동안 정체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갈림길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2000년에는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재부강함으로써 지식과 기술의 확대 재생산이 성장을 주도하는 선순환의 새로운 경제구조를 실현하는 기초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산업은 핵심역량에 전문화된 대기업, 기술집약적인 중소기업, 그리고 외국인 투자기업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안정된 3각구조와 함께, 국제분업질서의 재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글로벌 네트워크화된 모습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2000년 새해 아침, 저를 비롯한 산업자원부 직원, 그리고 기업인, 근로자 여러분 모두가 21세기 선진산업국가 도약을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한 각오를 새롭게 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가정에 기쁨과 보람이 가득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2000. 1 산업자원부장관 정 덕 구